

‘16강 가는 길’...남아공戰 사활 전다

정정용호, 내일 남아공 상대 U-20 월드컵 조별리그 운명의 2차전

‘무승부나 패배는 사실상 탈락’...상대 허점 노린 강공으로 승부
탄력, 스피드, 파워 등 탁월한 개인 기량 경제...비책 마련 고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운명의 2차전을 치러야 하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의 정정용 감독이 필승 구상을 완성하느라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한국대표팀은 29일 오전 3시30분(이하 한국 시간) 폴란드 티히의 티히 경기장에서 남아공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을 치른다.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0-1로 패한 한국이나 아르헨티나에 2-5로 진 남아공이나 16강 진출 가능성을 기우려면 승리가 절실한 한편이다.

정정용 감독은 25일 비엘스코-비아와에서 포르투갈과 대결하고 난 뒤 코치 등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50여분 정도 걸리는 티히로 향했다. 같은 조인 남아공-아르헨티나의 1차전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현지시간 26일 오전 한국대표팀은 비엘스코-비아와를 떠나 2, 3차전을 준비하기 위해 카토비체의 팀 호텔에 이동했다.

전날 포르투갈전에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은 카토비체로 이동하기 전 팀 숙소에서 회복훈련을 했다.

포르투갈전에 뛰지 않았거나 후반 교체 투입됐던 선수들은 카토비체로 이동한 뒤 이날 오후

대회 공식훈련장인 크레소바 구장에서 1시간가량 미니게임 등을 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골키퍼 이광연(강원)은 포르투갈전을 뛰었지만 훈련에 참여했다.

정 감독은 훈련 뒤 2차전 상대 남아공의 전력을 직접 지켜본 데 대해 “이미 대회를 준비하면서 영상으로 봤는데, 아프리카 대표로 월드컵 나온 팀이라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을 어제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적으로는 아프리카 선수 특유의 탄력과 스피드, 파워를 비롯해 개인 기량들이 좋더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다만 “수비에서 개인적인 것은 강한데 조직적으로 뭉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보였다”면서 “우리가 이를 역이용해서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가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감독의 남아공전 구상은 경기가 코 앞인데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포르투갈전을 앞두고는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물론 공격 전개과정까지도 거리낌 없이 드러낸 채로 준비해온 대표팀이었다.

‘애초 구상했던 남아공전 포메이션이나 선발 라인업이 직접 경기를 보고 나서 바뀌었는지’를 묻자 정 감독은 “영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현장에서 보고 나서 여러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어제 경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아공전에서는 당연히 포르투갈전보다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포메이션은 유지하며 변화를 줄지, 아니면 아예 포메이션부터 바꿀지에 대해서도 정 감독은 힌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정 감독은 남아공 얘기를 꺼내면서 “남아공도 아프리카 대회에서는 성적을 내려고 강팀 세레갈을 만났을 때 스리백을 가동했다. 어제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는 비록 결과는 안 좋았지만 공격적으로 포백으로 나섰다”면서 “우리한테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만 했다.

남아공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 골을 뽑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에서도 세트피스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세트피스에서 실점은 거의 없었다”면서 “우리도 세트피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만큼 준비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케빈 나가 27일 열린 PGA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 최종 라운드 8번홀에서 퍼트를 성공시킨 후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케빈 나, 10개월만에 통산 3승

PGA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 우승...상금 3천만 달러 돌파

재미교포 케빈 나(36·한국이름 나상욱)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통산 3승 고지에 올랐다.

케빈 나 27일 열린 PGA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7월 밀리터리 트리뷰트 제패 이후 10개월 만이다. 우승 상금 131만4천달러를 받은 케빈 나 27일 PGA투어 통산 상금 3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PGA투어 통산 상금 3천만 달러 고지는 34명밖에 밟아보지 못했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로는 최경주(49)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우승으로 케빈 나 27일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으며 내년 마스터스 등 특급 대회 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2타차 선두에 최종 라운드에 나선 케빈 나 27일(파4)에서 1m 버디를 잡아내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4번홀(파3)에서 먼 거리 퍼트를 성공한 케빈 나 27일(파4)에서 2타차로 2타차 선두를 유지했다.

14번홀(파4)에서 3m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케빈 나 27일(파4)에서 2타차로 따라오던 토니 피나우(미국)가 16번홀(파3)에서 1타를 잃으며 4타차까지 달아나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케빈 나 27일(파4)에서 3m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이정협, 벤투호 첫 발탁

손흥민, A매치 대표팀 승선...6월7일 호주·11일 이란과 맞대결

유럽축구 ‘꿈의 무대’ 결승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이 6월 A매치(축구대표팀간 경기)에 소집된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27일 축구회관에서 이란, 호주와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소집 대상 선수 2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달 2일 리버풀과 2018-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서는 손흥민은 벤투호의 에이스로 6월 두 차례 평가전에 출격한다.

벤투호는 6월7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호주와 평가전을 치른 뒤 같은 달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평가전을 벌인다.

손흥민 외에 눈에 띄는 선수는 공격수 이정협(부산)이다.

이정협은 지난 3월 소집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무릎 부상 여파로 낙마했

던 지원원을 대신해 호출을 받았다.

‘슈틸리케호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정협이 대표팀에 소집된 건 2017년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 참가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고,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처음이다.

또 3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강인(발렌시아)과 김정민(리퍼링)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어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했다.

미드필더 손준호(전북)와 수비수 김태환(울산)은 각각 작년 1월 터키 훈련 이후 1년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이와 함께 이재성(울수타인 킬)과 권창훈(디즈), 백승호(지로나),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황희찬(잘츠부르크 등 유럽파들도 6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2019 거점리그 유소년 축구대회 성료

«광주시 거점스포츠클럽(회장 윤오남)은 지난 25일 광주보라매축구공원에서 2019 거점리그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와 «광주시 거점스포츠클럽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7개 팀 250여명이 참여해 초등부 3개부문(U-12, U-10, U-8)으로 나뉘어 리그·토너먼트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초등학교 U-12부(5-6학년)는 신화유소년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베스트일레븐팀이 준우승, JK 풋볼 아카데미팀이 3위에 입상했다. 초등학교 U-10부(3-4학년)는 CSJ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베스트일레븐팀이 준우승, 광주유스FC팀이 3위에 입상했다. 초등학교 U-8부(1-2학년)는 신화유

소년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베스트일레븐팀이 준우승, JK 풋볼 아카데미팀이 3위에 입상했다.

개인상 시상에서는 대회 최우수상에 U-8부(1-2학년)는 ▲신화유소년팀 김우진 선수, U-10부(3-4학년)는 ▲CSJ팀 김태형 선수, U-12부(5-6학년)는 ▲신화유소년팀 장지훈 선수가 각각 트로피와 함께 상품으로 축하화를 받았다.

윤오남 «광주광역시 거점스포츠클럽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 꿈나무들이 웃고 즐기며, 협동심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여 큰 감동을 받았다”며 “어린 유소년들이 대회를 통해 즐거운 경험을 쌓고, 나아가 한국 축구의 기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치평초·담양동초 배구 남녀 동반 결승 진출

역도 박수현, 태권도 문청민, 체조 문건영
체조 오재준·나종빈, 수영 강은후 ‘값진금’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광주·전남 꿈나무들의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선수단은 여학생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배구 여초부 치평초는 예선부터 압도적으로 경기력을 과시하며 강원과 대구를 꺾고 가법계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강호 서울을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선착한 치평초는 28일 금메달을 놓고 숙적 경남(유영초)과 마지막 일전을 펼친다.

배드민턴 여초부에 출전한 광주선발도 결승에 진출했다.

산월초와 계림초 선수들로 구성된 광주는 부산, 서울, 경남을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광주는 결승에서 경기도와 대결한다.

역도 여중부 58kg급에 출전한 박수현(광주제중 3)은 인상에서 금빛 바벨을 들어올렸다.

태권도 여초부 -39kg급에 출전한 문청민(봉산초 6)은 이해원(경기 군문초 6)과의 결승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이며 정상에 올랐다. 체조 남중부에 출전한 문건영(광주제중 1년)은 마루 종목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선수단은 체조와 수영에서 무더기 메달을 획득했다.



27일 원광대체육관에서 열린 남중부 배드민턴 경기에서 서울선발을 3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화순중 선수들이 정건배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사진 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27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체조 경기에서 남초부 오재준(영광 중앙초 5)이 안마에서 금메달을 신고했다. 정진혁(영광 중앙초 6)과 김한성(영광 중앙초 5)은 안마와 링에서 동메달을 보였다.

체조 남중부에서는 나종빈(전남체육중 1)이 링에서 ‘금빛 착지’를 선보였다. 나종빈은 안마에서 은메달을 보였다. 또 김선우(전남제중 1)는 평행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수영에서는 강은후(동광양중 3)가 여중부 평영 200m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전남 태권도의 선전도 두드러졌다.

남초부 -42kg급 김다건(시중초 6)이 은메달을, -54kg급 이승한(동백초 6)이 동메달을 따냈다.

남중부에서는 신주환(전남제중 2)과 진현우(광양중동중 2)가 여중부에서는 서지혜(전남제중 1)가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단체종목도 순항중이다.

여초부 축구 광양중앙초와 남초부 배구 담양동초가 결승에 진출했고, 남중부 배드민턴 화순중과 여중부 핸드볼 무안북중도 각각 전북선발과 충북일신여중을 상대로 금메달이 걸린 마지막 일전을 펼친다.

/박희중 기자

제6회 광주시장배 전국장애인보치아선수권 대회 ‘열전’

경기도 종합우승 영예

제6회 광주시장배 전국장애인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4-27일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선수 150명, 임원 및 보호자 150명, 자원봉사자 100

명 등 500여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14년부터 장애인보치아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해 온 ‘하이트 진로배 전국장애인보치아선수권대회’를 ‘광주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보치아선수권대회’로 격상해 우수한 기

량과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권위 있는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대회 경기결과 세부종목별 Bc1 정성준(경기도), Bc2 김원(광주시), Bc3 김준업(경기도), Bc4 장성욱(경기도)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종합시상 우승은 경기도가 차지했고, 서울시가 준우승, 충남이 3위를 기록했다.

서용규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돼 함께 즐기며 마음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의 뜨거운 열기가 얼마 남지 않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